



초 | 등 | 부 | 터 EBS



민중의와

≡ 예습, 복습, 숙제까지 해결되는 교과서 완전 학습서 ≡




5-1

국어

인터넷·모바일·TV
무료 강의 제공





그림의 색이 밝고
화사해서 참 좋아.
그림을 잘 그려서
정말 좋겠다.

나무가 너무 단순해서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아.
나무를 좀 더 자세히
그려야 해.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한 친구는 칭찬하는 말을, 한 친구는 충고하는 말을 하고 있네요. 칭찬하는 친구는 밝은 표정으로 잘한 일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고하는 친구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충고를 했어요.

이제, 1단원에서는 대화의 특성을 알고 친구에게 칭찬하거나 조언하는 말을 해 볼 거예요.



1 대화와 공감

단원 학습 목표

19쪽 단원 정리 학습에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세요.

1. 상대가 잘한 일이나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할 수 있습니다.

-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하고,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2.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할 수 있습니다.

- 상대에게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 고민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듣습니다.
-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하며, 상대에게 진심이 전해지도록 노력합니다.

단원 진도 체크

회차	학습 내용		진도 체크
1차	단원 열기	단원 학습 내용 미리 보고 목표 확인하기	✓
	교과서 내용 학습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2차	교과서 내용 학습	「칭찬의 힘」	✓
	교과서 내용 학습	「정인이의 고민」	✓
3차	교과서 내용 학습	「우리 반 친절왕」	✓
	교과서 내용 학습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	✓
4차	서술형 수행 평가 돌보기	서술형 수행 평가 대비 학습하기	✓
	교과서 문제 확인	교과서 문제 학습하며 학교 숙제 해결하기	✓
5차	단원 정리 학습	단원 학습 내용 정리하기	✓
	단원 확인 평가	확인 평가를 통한 단원 학습 상황 파악하기	✓

해당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 표를 하세요.



교과서 내용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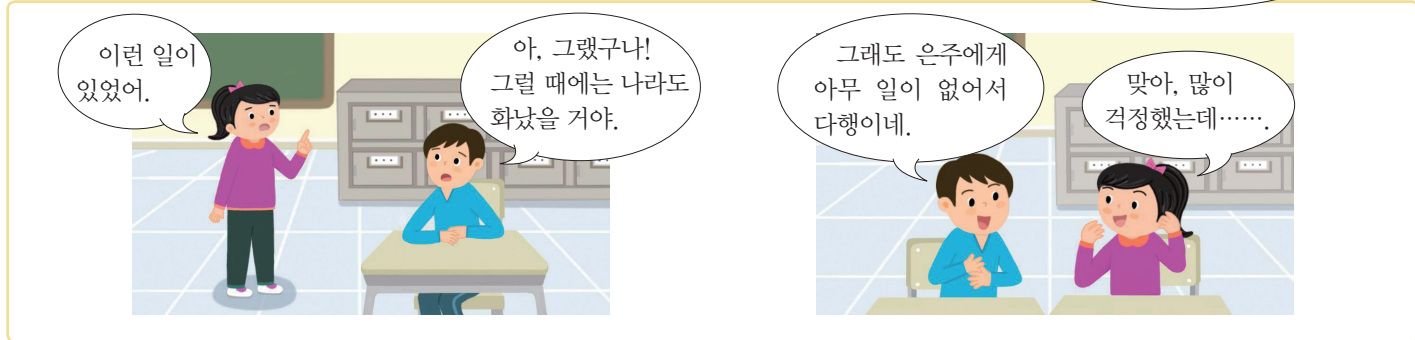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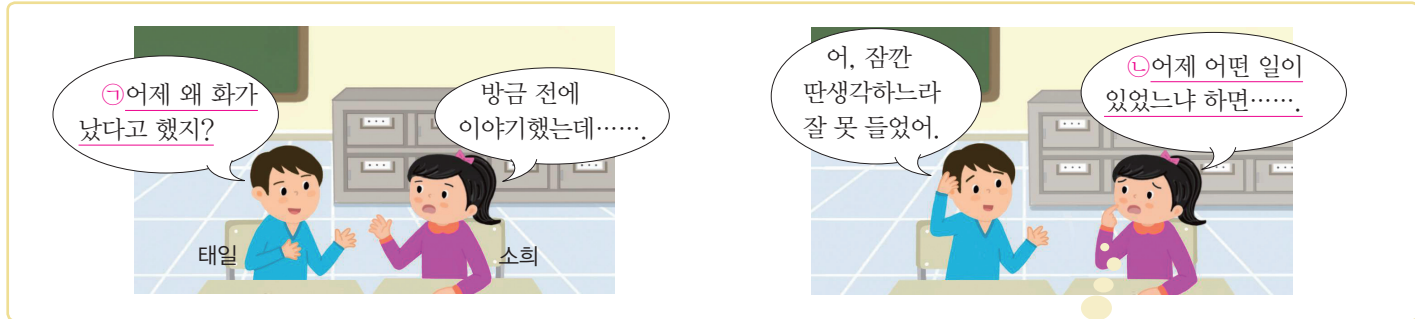


교과서 36~39쪽 내용

학습 목표 ▶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교과서 36~39쪽

[01~06] 다음 태일이와 소희의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01 태일이가 소희에게 ㉠과 같이 물어본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소희가 한 말이 재미있어서
- ② 소희와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서
- ③ 소희가 한 말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 ④ 소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아서
- ⑤ 판생각을 하느라 소희의 말을 듣지 못해서

02 은주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온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

■ 대화의 특성

-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말해야 합니다.

03 은주의 말을 듣고 소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

- ① 은주에게 화를 냈다.
- ② 은주에게 짜증을 냈다.
- ③ 은주의 행동을 칭찬하였다.
- ④ 은주의 처지를 이해해 주었다.
- ⑤ 은주의 말을 못 들은 척하였다.

04 그림 1~4를 보고, ㉠을 말하는 소희의 표정이나 말투에 대해 알맞게 짐작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세린: 화가 났던 일을 말하니까 진지한 말투와 굳은 표정으로 말한 것 같아.
 민우: 태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기쁜 표정과 신나는 목소리로 말한 것 같아.
 은제: 말했던 내용을 다시 들려줘야 하니까 밝은 표정을 지으며 슬픈 목소리로 말한 것 같아.

()

05 태일이는 소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 ① 소희의 행동을 칭찬하였다.
- ② 소희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 ③ 소희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 ④ 소희에게 충고의 말을 하였다.
- ⑤ 소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물어보았다.

중요
06 태일리와 소희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대화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한다.
- ②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는다.
- ③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말해야 한다.
- ④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친한 사이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눈빛만으로도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 말을 주고받을 때 표정과 말투의 역할

-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감 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 표정이나 말투에 따라 말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07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말투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 ㉠ 진지한 표정과 조용한 목소리
- ㉡ 답답한 표정과 억울해하는 목소리
- ㉢ 활짝 웃는 표정과 반가워서 커진 목소리

- (1) 전학 간 친구에게 편지가 와서 기뻐할 때 ()
- (2) 짝에게 색연필을 빌려 쓰다가 부러뜨려서 미안하다고 할 때 ()
- (3) 옆에 있는 친구가 물을 쏟았는데 내가 한 일로 오해를 받았을 때 ()

중요
08 말을 주고받을 때 표정과 말투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 ②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표정이나 말투에 따라 말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 ④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감 나게 나타낼 수 있다.
- 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서술형
09 친구가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친구의 표정, 몸짓, 말투는 어떠할지 쓰시오.

도움말 칭찬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칭찬하는 말을 한 사람의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해 봅시다.

중심 내용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4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일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100점이네. 정말 좋겠다.”와 같이 칭찬하기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와 같이 칭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가 노력의 의미를 깨닫는답니다.
과정을 칭찬하면 좋은 점

중심 내용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5 셋째,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에는 평가하기보다 잘한 일이나 행동을 설명하듯이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넌 정말 착하구나!”와 같이 칭찬하면 착한 아이로 평가받으려고 억지스럽거나 나 과장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칭찬하기보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어 친구가 참 고마워하겠다!”와 같이 칭찬하면 상대가 행동의 가치를 이해한답니다.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하면 좋은 점

중심 내용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6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더욱 좋아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지금의 능력보다 잠재 가능성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재 있거나 숨어 있음. 능력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요. 현재 걸음으로 드러난 결과는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미술에 소질이 많은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와 같이 칭찬하면 상대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하면 좋은 점

중심 내용 칭찬하는 말에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칭찬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7 또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무엇보다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칭찬하는 말에 마음을 담아야 해요. 달콤한 칭찬의 말이지만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진심 어린 칭찬이야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14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

- ① 자주 하는 칭찬
- ② 오래 하는 칭찬
- ③ 진심 어린 칭찬
- ④ 짧고 간단한 칭찬
- 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칭찬

16 친구를 칭찬하려고 할 때 칭찬거리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친구의 장점
- ② 친구가 잘하는 것
- ③ 친구가 노력하는 것
- ④ 친구에게 부족한 것
- ⑤ 친구에게 고마운 것

15 **중요** 「칭찬의 힘」을 읽고 알게 된 칭찬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결과만 평가하여 칭찬해야 한다.
- ②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한다.
- ③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한다.
- ④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해야 한다.
- ⑤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한다.

서술형

17 다음 **보기**와 같이 친구를 칭찬하는 말을 쓰시오.

보기

이지현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비 오는 날에 우산이 없었는데 집까지 우산을 씌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움말 친구의 칭찬거리를 떠올려 그 까닭과 함께 씁니다.

■ 대화의 내용

동욱이가 뒤 구르기를 못해 걱정한 정인에게 억지로 고민을 말하라고 강요하고 정인의 고민을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해서 정인이가 화를 냈습니다.

★ 바르게 읽기

[고민꺼리]	[고민거리]
(○)	(×)

■ 조언이란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는 말입니다.

■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

- 상대에게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 상대가 고민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듣습니다.
-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 상대에게 진심이 전해지도록 노력합니다.

동욱: 정인아, 무슨 걱정이 있니?

정인: (다소 힘없는 듯한 목소리로)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동욱: (빈정거리는 말투로) 에이, 얼굴 표정을 보니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남을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자주 놀리는.

정인: (약간 성가신 듯이) 고민은 무슨 고민? 아무 일 없다니까.

자꾸 들볶거나 번거롭게 물어 괴롭고 귀찮은.

동욱: (궁금해하며) 그러지 말고 말해 봐. 무슨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말하지 않을게.

정인: (조심스럽게) 음, 사실은 체육 시간에 뒤 구르기가 잘 안돼. 그래서 모뎀꺼리 여러 가지 동작을 꾸밀 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동욱: (큰 소리로) 뭐, 네가 뒤 구르기를 못한다고? 그럼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해.

정인: (당황하며) 어떻게 그러니?

뒤 구르기를 도와달라고 하니?

동욱: 그럼 내가 말해 줄까?

정인: (황급히 큰 소리로) 아냐,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몹시 어수선하고 급박하게.

동욱: 네가 말을 못 하면 내가 말해 줄게.

정인: (화를 내며) 아냐, 내가 알아서 한다고.

동욱: (멋쩍어하며) 도와준다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어색하고 쑥스러워하며.

18 정인의 고민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체육 시간에 ㉠ 이/가 잘 안되어서 모뎀꺼리 여러 가지 동작을 꾸밀 때 ㉡ 이/가 될 것 같아 걱정함.

- (1) ㉠: ()
(2) ㉡: ()

19 정인의 고민을 듣고 동욱이가 말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앞 구르기만 하는 것
- ② 유연성을 기르는 체조를 하는 것
- ③ 집에서 뒤 구르기 연습을 하는 것
- ④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와 달라고 말하는 것
- ⑤ 여러 가지 동작을 꾸밀 때 뒤 구르기를 빼는 것

20 정인이가 동욱이에게 화를 낸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동욱이가 정인의 고민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
- (2) 정인이는 원하지 않는데 동욱이가 정인의 고민을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해서 ()



21 「정인의 고민」을 읽고 알게 된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조언할 때는 장난처럼 말해야 한다.
- ②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야 한다.
- ③ 상대의 고민을 억지로라도 해결해야 한다.
- ④ 상대에게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 ⑤ 상대에게 고민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반 친절왕

학습 목표 ▶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

교과서 50~51쪽

민재: (조심스럽게) 주민아, 너희 아빠께서는 소방관이시니까 덩치도 크고 운동도 잘 하시겠다.

주민: (밝게 웃으며) 우리 아빠? 키는 크신데 운동은 잘 안 하셔. 요즘에 119 구조대로 부서를 옮기시고는 친절왕이 되셨지. 아빠의 친절왕 정신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 놀러 갈 때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기도 해. 얼마 전에는 영화관에 너무 늦게 들어가서 영화 뒷부분만 본 적도 있어.
아빠의 친절왕 정신 때문에

민재: (크게 웃으며) 왜?

주민: 길을 잃고 헤매는 할머니를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드리느라 그랬지. 우리 아빠께서는 길에서 애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꼭 가서 말리셔야 하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셔야 해. 무관심은 나쁜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 이야.

민재: (감탄하며) 우아, 너희 아빠 참 대단하시다.

주민: 대단하다고? 글썄, 처음에 난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우리 아빠께서 좀 심하시다는 것을 알게 됐지.
주민이 아빠에 대한 '민재의 생각'

■ 대화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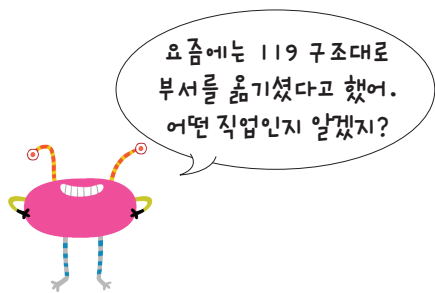
민재와 주민이가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받아 주며 이야기하는 기분 좋은 대화입니다.

■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22 주민이 아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소방관 ② 선생님
- ③ 경찰관 ④ 영화감독
- ⑤ 운동선수



23 주민이는 자신의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

- ① 대단하신 분
- ② 주말엔 잠만 주무시는 잠꾸러기
- ③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신 분
- ④ 덩치도 크고 운동도 잘하시는 분
- ⑤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꼭 도와주시는 친절왕

24 주민이가 영화관에 너무 늦게 들어가서 영화 뒷부분만 본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늦잠을 자서
- ② 아빠와 함께 운동을 하느라
- ③ 영화 앞부분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어서
- ④ 119 구조대원인 아빠께서 급한 환자를 이송해야 해서
- ⑤ 아빠께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할머니를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드리느라

25 중요 민재와 주민이가 즐겁게 대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재미있는 농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 ② 둘 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 ③ 서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 ④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받아 주며 이야기했기 때문에
- ⑤ 한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 인물의 마음

민재: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 공감하는 마음

★ 바르게 읽기

[올만나]	[올만나]
(○)	(×)

■ 공감적 듣기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상대의 말에 관심을 나타내고 반응하며 듣는 것을 말합니다.

민재: (궁금하다는 듯이) 그게 싫었니?

아빠가 다른 사람을 돕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주인: 응, 솔직히 우리 아빠께서 나한테만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 남을 돕는다고 뛰어다니시다가 정작 나랑 할 일을 하시지 못한 적이 꽤 많았으니까.

민재: ㉠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주인: 그런데 나중에는 포기했지. 원래 그러시는 것을 내가 어찌겠어.

원래 남을 잘 돕고 친절하신 것

민재: 내 생각에는 너도 너희 아빠와 비슷한 것 같은데?

주인: (놀라며) 내가? 그럼 안 되는데! 나는 아빠를 닮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아빠와 비슷하면

민재: (밝게 웃으며) 내 눈에는 너도 친절왕이야.

주인: (엄살을 떨며) 그럼 정말 안 되는데. 아빠의 바이러스가 나한테 [★] 옮았나?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보다 보태어서 나타냄.

민재: (궁금한 듯이) 아빠의 바이러스?

주인: 내가 아빠께 친절왕이 옮기고 간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거든. 아빠와 같이 사니까 나한테도 옮았나 봐.

26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친절하신 아빠에 대한 주민이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아빠가 자랑스럽고 고맙다. ()
- (2) 아빠께서 남을 돕느라 바쁜 것이 싫고 나한테만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한다. ()

28 민재는 주민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주민이도 와/과 비슷하며, 나의 눈에는 주민이도 이다.

- (1) ㉠: ()
- (2) ㉡: ()

중요 27 민재는 어떤 마음으로 ㉠처럼 말했겠습니까? ()

- ① 주민이가 부러운 마음
- ② 주민이 생각에 공감하는 마음
- ③ 주민이 생각에 반대하는 마음
- ④ 주민이 아빠가 자랑스러운 마음
- ⑤ 주민이 아빠의 생각에 공감하는 마음

서술형

29 「우리 반 친절왕」에 나오는 민재와 주민이의 대화처럼 친구와 대화할 때는 서로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며 대화하는 것이 좋은지 쓰시오.

도움말 민재와 주민이는 서로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며 대화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교과서 52~53쪽 내용

학습 목표 ▶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

교과서 52~53쪽

가

내가 상을 받아서 기쁘지만 정우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상을 못 받아서 아쉬워. 그래도 친한 친구가 상을 받았으니 축하해 줘야겠지.



시현

정우

나

오늘은 유라가 그림을 늦게 그리네. 도와준다고 할까? 평소에 나보다 더 잘하는데 기분 나빠 할까?

좀 도와 달라고 할까? 지난번 미술 시간에 정아에게 스스로 완성해 보라고 했는데…….



정아

유라

다

책을 읽고 싶는데 조용히 해 달라고 할까? 쉬는 시간인데 말도 못 하게 한다고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갈까?



명진

윤성

준호

■ 대화의 상황

가

- 시현이가 상을 받았지만 상을 받지 못한 정우를 보고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상황
- 정우는 상을 받지 못해 아쉽지만 상을 받은 시현이를 축하해 주어야 하는 상황

나

- 미술 시간에 정아가 유라를 도와줄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
- 유라가 정아에게 도와 달라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

다

- 교실에서 윤성기와 준호가 떠들고 있어서 명진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만 쉬는 시간이라서 친구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

중요 30

그림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 입니까? ()

- ① 그림 가는 상을 받지 못해 아쉽지만 상 받은 친구를 축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 ② 그림 가는 상을 받았지만 상을 받지 못한 친구를 보고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 ③ 그림 나 는 친구를 도와주어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이다.
- ④ 그림 다 는 친구에게 도와 달라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이다.
- ⑤ 그림 다 는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만 친구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술형

31

그림 나 의 상황에 맞게 공감하는 대화를 간단히 쓰시오.

정아: _____

유라: _____

정아: _____

유라: _____

도움말 상대의 처지를 생각하며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는 대화를 씁니다.



학교에서 출제되는
서술형 수행 평가를
미리 준비하세요.

서술형 수행 평가 돋보기

①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정우: 시현아, 글쓰기 대회에서 상 받았지? 정말 축하해.

시현:

정우: 괜찮아.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더 배워야겠어.

시현: 그래, 너는 아직 한참 더 배워야 해.

정우: 그래, 좀 더 배워서 다음에는 나도 상을 받도록 할게.

1 그림의 상황에서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으면 좋을지 쓰시오.

2 시현이가 정우의 속상한 마음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시현: _____

3 정우와 시현이의 대화에서 잘하거나 부족한 점을 쓰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 말하면 좋을지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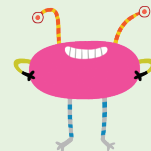
문제 파악

친구들의 대화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고쳐 써 보는 문제입니다.

해결 전략

- 1 단계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생각하기
- ↓
- 2 단계 공감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할 알맞은 대화 쓰기
- ↓
- 3 단계 대화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기
- ↓
- 4 단계 대화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감하는 대화로 바꾸어 쓰기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 주시는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도 book ③ 해설책에서 꼭 확인하세요!





교과서 문제 확인



교과서
37~39쪽

교과서 36~39쪽

○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 태일이가 소희에게 어제 일을 물어본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잠깐 딴생각하느라 소희가 한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소희는 은주가 한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 은주의 처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 태일이는 소희가 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 소희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 대화의 특성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 예**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아. /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아야 해. /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어. /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말해야 해.
- 말을 주고받을 때 표정과 말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 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감 나게 나타낼 수 있다. /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 표정이나 말투에 따라 말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 친구가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친구의 표정, 몸짓, 말투는 어떠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 예** 기쁜 표정과 신나는 목소리로 말할 것 같아. / 손뼉을 치면서 활짝 웃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할 것 같아.

교과서
41~43쪽

교과서 40~43쪽

○ 상대가 잘한 일이나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 칭찬은 왜 힘이 세다고 했나요? **예** 칭찬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 칭찬은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칭찬이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 예**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합니다. /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 칭찬하는 말에 마음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예** 말로만 하는 칭찬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진심을 담아 칭찬합니다.
- 칭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세요.
 - 예** 칭찬은 상대의 기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어. / 칭찬은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힘을 줘. / 누군가에게 용기를 줘. /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 /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돼. /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해.
- 칭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 예**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 /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아. /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해. /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해야 해.
- 칭찬거리가 잘 드러나게 친구의 별명을 지어 봅시다.
 - 예** 재호는 글씨를 바르게 쓰니까 '바른 글씨 재호'라고 하면 좋겠어. / 다혜는 마음씨가 착하니까 '착한 마음 다혜'라고 별명을 지을 거야. / 주호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친구를 위해 봉사를 잘하니까 '봉사왕 주호'라고 부르면 좋겠어.



교과서 문제와 답을 확인하며 학교 숙제를 해결하세요.

교과서
44~45쪽

「정인의 고민」

동욱이가 뒤 구르기를 못해 걱정하는 정인에게 억지로 고민을 말하라고 강요하고 정인이가 원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해결 방법을 말해서 정인이가 화를 낸다는 대화

• 정인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예 체육 시간에 뒤 구르기 동작이 잘 안되어서 모뎀끼리 여러 가지 동작을 꾸밀 때 방해가 될 것 같아 걱정합니다.

• 정인의 고민을 듣고 동욱이가 말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와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정인은 동욱이에게 왜 화를 냈을까요?

예 정인은 원하지 않는데 동욱이가 정인의 고민을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 「정인의 고민」에서 정인과 동욱이가 고민을 말하고 듣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예 동욱: 정인의 얼굴 표정을 보고 고민거리가 있는지 물어봄. → 정인: 고민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음.

→ 동욱: 고민을 말하라고 재촉함. → 예 정인: 동욱이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음.

→ 예 동욱: 정인의 고민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해결 방법을 말함. → 정인: 동욱이가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 방법을 강요해 화를 냄.

교과서
51쪽

「우리 반 친절왕」

‘나’와 주민이가 서로의 말에 공감하며 나누는 대화

• 민재와 주민이가 즐겁게 대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받아 주며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 민재와 주민이는 서로 어떻게 반응하며 말을 주고받았나요? 예 서로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했습니다.

• 민재는 어떤 마음으로 처럼 말했을까요? 예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교과서
53쪽

교과서 52~53쪽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

• 그림 가~다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가: 시현이가 상을 받았지만 상을 받지 못한 정우를 보고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상황 / 정우는 상을 받지 못해 아쉽지만 상을 받은 시현이를 축하해 주어야 하는 상황

나: 미술 시간에 정아가 유리를 도와줄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 / 유리가 정아에게 도와 달라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

다: 교실에서 윤성이와 준호가 떠들고 있어서 명진이가 책을 읽는 데 방해가 되지만 쉬는 시간이라서 친구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

• 그림 가~다에서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으면 좋을까요?

예 친구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단원 정리 학습



핵심 1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1 대화의 특성

-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말해야 합니다.

2 말을 주고받을 때 표정과 말투의 역할

-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감 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 표정이나 말투에 따라 말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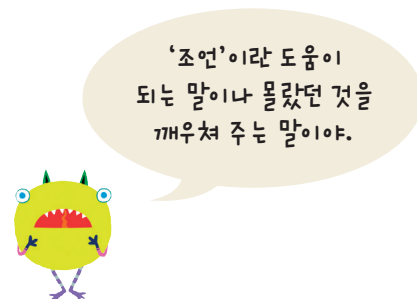


핵심 2 상대가 잘한 일이나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구네!”
-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네!”
-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어 친구가 참 고마워하겠대!”
-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예 “미술에 소질이 많은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핵심 3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

- 상대에게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 상대가 고민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듣습니다.
-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 상대에게 진심이 전해지도록 노력합니다.





단원 확인 평가



01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말투에 ○표를 하시오.

친구들이 깜짝 생일 축하 잔치를 해 주었을 때

- (1) 진지한 표정과 조용한 목소리 ()
- (2)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놀란 표정과 빠른 목소리 ()

[02~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저,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두루뭉술하게 칭찬하지 말고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우아, 멋지다!”, “정말 대단해!”와 같이 칭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구나!”와 같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가 무엇을 잘했는지 알고 칭찬을 받으려고 더 노력하게 된답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일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100점이네. 정말 좋겠다.”와 같이 칭찬하기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와 같이 칭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가 노력의 의미를 깨닫는답니다.

(나)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아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지금의 능력보다 잠재 능력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요. 현재 걸으며 드러난 결과는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미술에 소질이 많은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와 같이 칭찬하면 상대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1. 대화와 공감



02 칭찬하는 방법에 맞게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분명하고 () 칭찬한다.
- (2) 결과보다 ()을/를 칭찬한다.
- (3) ()을/를 키워 주는 칭찬을 한다.

03 다음 중 이 글에서 설명한 칭찬하는 말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정말 대단해!” ()
- (2) “우아, 멋지다!” ()
- (3) “100점이네. 정말 좋겠다.” ()
- (4) “그렇게 열심히 하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



04 다음 친구를 칭찬하려고 합니다.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하는 말을 쓰시오.

운동에 소질이 보이는 친구

도움말 앞으로 어떠한 것이라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05 대화의 특성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모두 쓰시오.

수민: 대화할 때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말해야 해.
 예서: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어.
 지현: 상대를 직접 보지 않거나 잘 듣지 않아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

(,)



06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는 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 ① 칭찬 ② 조언 ③ 속담
- ④ 격언 ⑤ 주장



07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한다.
- ㉡ 상대에게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 고민을 말하지 않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묻는다.
- ㉣ 상대가 고민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듣는다.

()

[08~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인: 길을 잃고 헤매는 할머니를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느라 그랬지. 우리 아빠께서는 길에서 애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꼭 가서 말리셔야 하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셔야 해. 무관심은 나쁜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민재: (감탄하며) 우아, 너희 아빠 참 대단하시다.

주인: 대단하다고? 글썄, 처음에 난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우리 아빠께서 좀 심하시다는 것을 알게 됐지.

민재: (궁금하다는 듯이) 그게 싫었니?

주인: 응, 솔직히 우리 아빠께서 나한테만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 남을 돕는다고 뛰어다니시다가 정작 나랑 할 일을 하시지 못한 적이 꽤 많았으니까.

민재: ㉠

주인: 그런데 나중에는 포기했지. 원래 그러시는 것을 내가 어찌겠어.

민재: 내 생각에는 너도 너희 아빠와 비슷한 것 같은데?

주인: (놀라며) 내가? 그럼 안 되는데! 나는 아빠를 닮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

민재: (밝게 웃으며) 내 눈에는 너도 친절왕이야.

08 주인이 아빠의 친절한 행동에 대한 민재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대단하시다.
- ② 그런 행동이 싫다.
- ③ 아빠께서 좀 심하시다.
- ④ 아빠를 닮지 않아야겠다.
- ⑤ 원래 그러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09 ㉠에 들어갈 주민이의 말에 공감하는 말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
- (2) 말도 안 돼. 훌륭한 분이신걸? ()
- (3) 다시 생각해 봐. 아빠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

서술형

10 다음 상황에서 명진이는 친구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살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쓰시오.



도움말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말을 해야 합니다.



짝 바꾸는 날

김윤희

오늘은
짝 바꾸는 날

누구랑 짝이 될까?
가슴이 쿵닥쿵닥
마음이 조마조마

제일 친한 현아랑도 앉고 싶고
잘생긴 민재랑도 앉고 싶고

욕심쟁이 친구, 잘난 척 대마왕은
정말 피하고 싶다.

이 시에는 어떤 경험이 나타나 있나요? 짝 바꾸는 날의 설레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네요. 이 시를 재미있게 읽으려면 짝을 바꾸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날 마음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이제, 2단원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시와 이야기를 감상해 볼 거예요.



2 작품을 감상해요

단원 학습 목표

36쪽 단원 정리 학습에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세요.

1.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알아봅니다.
- 시에서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파악합니다.
-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 비슷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져 본 경험을 떠올립니다.

2.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 내가 겪은 일이나 아는 것을 활용해 이야기를 읽습니다.
- 작품 속 주인공이 겪은 일과 현실에서 내가 겪은 일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읽습니다.

단원 진도 체크

회차	학습 내용		진도 체크
1차	단원 열기	단원 학습 내용 미리 보고 목표 확인하기	✓
2차	교과서 내용 학습	「유관순」	✓
	교과서 내용 학습	「출렁출렁」	✓
3차	교과서 내용 학습	「덕실이가 말을 해요」	✓
4차	교과서 내용 학습	「꽃」	✓
	교과서 문제 확인	교과서 문제 학습하며 학교 숙제 해결하기	✓
5차	단원 정리 학습	단원 학습 내용 정리하기	✓
	단원 확인 평가	확인 평가를 통한 단원 학습 상황 파악하기	✓

해당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 표를 하세요.



교과서 내용 학습



유관순

학습 목표 ▶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읽을 때 좋은 점 알기

교과서 62~67쪽

- 글의 종류: 전기문
- 글의 특징: 유관순의 생애를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쓴 전기문입니다.

중심 내용 1902년, 천안의 작은 마을에서 선비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관순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 신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유관순의 아버지는 대를 이어 그 마을에서 살아온 선비 집안의 후손이었다. 유관순의 집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지만,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유관순에게 평소 마음에 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시달리는 것은 나라의 힘이 약한 까닭이다. 나라의 힘을 기르려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여자들도 집안일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배워서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야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유관순을 서울로 보내어 신학문을 배우게 하셨다.

중심 내용 1916년, 이화학당에 입학한 유관순은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 우리글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글을 가르쳤습니다.

2 1916년에 유관순은 서울 정동에 있는 이화학당에 입학했다. 유관순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방학 동안에는 고향에 내려가 우리글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글을 가르쳤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글을 배우는 것을 싫어했다. 우리글에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 헌병이 몇 번이고 훼방을 놓았지만, 유관순은 굽히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성껏 우리글을 가르쳤다.

중심 내용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고, 유관순도 친구들과 목이 터져라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3 이 무렵, 우리 겨레는 내 나라, 내 땅에서 마음 놓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았으며 모두 독립을 애타게 바랐다. 그리하여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목청껏 독립을 외쳤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독립 만세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 바르게 쓰기
정성껏 (○) 정성껏 (×)



01 유관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

도움말 유관순에 대해 보거나 들었던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02 유관순이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 한 일을 찾아 쓰시오.
()



03 유관순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우리나라의 힘이 약했다.
- ② 1919년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 ③ 일본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겼다.
- ④ 일본은 우리 민족이 한글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 ⑤ 우리 겨레는 내 나라, 내 땅에서 마음 놓고 살지 못했다.

그날, 유관순도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다. 태극기를 든 남녀노소가 한목소리로 독립 만세를 불렀다. ㉠ 유관순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유관순은 친구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독립 만세를 불렀다.

“대한 독립 만세!” / “대한 독립 만세!”

거리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태극기의 물결은 온 장안을 뒤덮었다. 일본 헌병들은 닥치는 대로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아댔다. 많은 사람이 쓰러졌으나 만세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유관순과 친구들이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여러 선생님과 친구가 잡혀간 뒤였다.

중심 내용 1919년 3월 10일, 일본이 학교를 닫아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독립 만세를 부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4 1919년 3월 10일, 일본은 학교를 강제로 닫았다. 그래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휴교} 뿔뿔이 흩어졌고 유관순도 고향으로 돌아왔다.

날말 사전

장안 수도,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서울'을 이르는 말.
치밀하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독립 만세를 부를 준비를 했다. 유관순은 사촌 언니와 함께 동지들을 모으고, 독립 만세를 부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날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며 독립 만세를 부르는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했다. 그렇지만 잠시 찬물에 발을 담그고, 곧바로 가족과 함께 밤새워 태극기를 만들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와 용기로 일을 추진했다.

독립 만세를 부르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밤이 되자 유관순은 **혜**를 가지고 매봉에 올랐다. 혜에 불을 붙여 높이 쳐들자 여기저기 다른 산봉우리에서도 횃불이 올랐다. 그 횃불들은 이튿날 있을 일을 다 짐하는 약속이었다.

★ 바르게 쓰기

밤새워 (○)	밤세워 (×)
------------	------------

혜 화톳불을 놓는 데 쓰는 물건. 싸리, 갈대, 또는 노간주나무 따위를 묶어 불을 붙여서 밤길을 밝히거나 제사를 지낼 때에 쓴다.

04 ㉠의 까닭을 알맞게 짐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헌병들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 ② 여러 친구들과 선생님이 잡혀가서
- ③ 거리에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 ④ 신학문을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 ⑤ 독립을 원하는 겨레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05 유관순이 고향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기 위해 한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사촌 언니와 함께 동지들을 모았다.
- ② 가족과 함께 밤새워 태극기를 만들었다.
- ③ 탑골 공원에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다.
- ④ 독립 만세를 부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 ⑤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며 독립 만세를 부르는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06 4에서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서울 → 천안 ()
- (2) 천안 → 서울 ()
- (3) 서울 → 부산 ()



07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경험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모두 쓰시오.

정호: 일본 여행 가서 초밥을 맛있게 먹은 일이 생각났어.
세이: 일제 강점기에 벌어진 일을 다룬 영화를 본 것이 기억이 났어.
태현: 가족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가서 유관순이 갇혔던 지하 감옥을 본 것이 생각났어.

()

중심 내용 유관순은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이끌었고, 일본 헌병들에 의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5 아우내 장터에 아침이 밝았다. 새벽부터 장터에 모여든 사람들은 여느 때보다 몇 곱절이나 되었다. 독립 만세를 부르려고 모인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오후 1시, 유관순은 많은 사람 앞에서 외쳤다.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겨레가 불행하게도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두 일어나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세를 부릅시다. 대한 독립 만세를!”

순식간에 독립 만세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었다. 깜짝 놀라 달려온 일본 헌병들은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평화롭게 독립 만세를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았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일본 헌병의 손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일본 헌병들은 유관순을 **찾느라고 온 마을을 샅샅이**

날말 사전 

방방곡곡(坊 동네 방, 坊 동네 방, 曲 굽을 곡, 曲 굽을 곡) 한 군데도 빠짐이 없는 모든 곳.

예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여행 중입니다.

뒤졌다. 유관순은 부모님의 시신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피할 수밖에 없었다.

중심 내용 유관순은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6 그러나 결국 유관순은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다. 그리고 일본 헌병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한 뒤에 재판 받았다. 유관순은 재판을 받을 때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당했다. 유관순은 3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한다는 유관순의 신념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중심 내용 1920년, 열아홉 나이에 숨을 거둔 유관순은 우리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7 1920년 9월 28일, 나라를 구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 만세를 부르던 유관순은 열아홉 나이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나 유관순이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은 지금도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남아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 바르게 읽기

[삼싸치]	[삼싸시]
(○)	(×)

고문(拷 칠 고, 問 물을 문)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무릅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고.

08 유관순이 독립 만세 운동을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부모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 ②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 ③ 서울에서 유행하는 운동이어서
- ④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해서
- ⑤ 일본 헌병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고 싶어서

09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유관순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

- ① 남녀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 ② 국민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
- ③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한다.
- ④ 우리말 우리글을 사랑해야 한다.
- ⑤ 국민 모두가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

중요 10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② 내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③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④ 이야기의 줄거리를 짧게 간추릴 수 있다.
- ⑤ 책이나 영상에서 본 것을 떠올리면 더욱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

서술형 11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쓰시오.

도움말 이 글은 유관순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전기문입니다.

출렁출렁

학습 목표 ▶ 경험을 떠올리며 시 읽기

교과서 68~70쪽

이러다 지각하겠다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학교가 우리 앞
학교에 늦었을 때 말하는 이가 빨리 가고 싶은 곳 ①
으로 온다

*
츄고 배고파 죽겠다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저녁을 차린 우
리 집이 버스 정류장 앞으로 온다 말하는 이가 빨리 가고 싶은 곳 ②

갑자기 니가 보고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그리운 니가 내게
'너'의 방언 말하는 이가 보고 싶은 이
안겨 온다

★ 바르게 쓰기

힘껏	힘껏
(○)	(×)

★ 바르게 읽기

[츄고]	[츄고]
(○)	(×)

- 글의 종류: 시
- 글쓴이: 박성우
- 글의 특징: 학교에 지각하겠다 싶을 때, 츄고 배고파 죽겠다 싶을 때, 네가 보고 싶을 때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학교, 집, 네가 내 앞으로 온다는 상상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입니다.

■ 경험을 떠올리며 시 감상하기

-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알아봅니다.
- 시에서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파악합니다.
-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 비슷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져 본 경험을 떠올립니다.

12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이 아닌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츄고 배고팠던 경험
- ② 학교에 지각할 뻔한 경험
- ③ 구불구불한 길을 걸은 경험
- ④ 누군가가 보고 싶었던 경험
- ⑤ 바다에 가서 파도를 탄 경험

14 각 연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마음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1) 1연

• ①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

(2) 2연

• ② 지각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걱정되는 마음

(3) 3연

• ③ 츄고 배고파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

13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길을 힘껏 잡아당기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표를 하시오.

- (1) 팔 힘을 기르고 싶기 때문에 ()
- (2) 그리운 사람을 보고 싶기 때문에 ()
- (3) 학교와 집에 빨리 가고 싶기 때문에 ()
- (4) 숙제를 빨리 마치고 놀고 싶기 때문에 ()
- (5) 친구들과 약속한 시간에 늦을 것 같기 때문에 ()

중요
15 이 시의 말하는 이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을 알맞게 떠올리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민혁: 놀이동산이 너무 재미있어서 집에 가기 싫었어.

해준: 1교시를 마치고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을 앞당기고 싶었어.

세은: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할머니 택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었으면 했어.

()

- 글의 종류: 이야기(동화)
- 글의 특징: 동화 『수일리와 수일리』의 첫 부분으로, 자신이 두 명이었던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일리에게 강아지 덕실이가 말을 하며 손톱을 깎아서 쥐한테 먹이라고 일러 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 글쓴이: 김우경

중심 내용 게임 속 세상에서 수일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컴퓨터 밖 세상은 수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1 “이제 시스템 전원을 끄셔도 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온 글

수일리는 컴퓨터 모니터에 나온 글을 보며 발로 책상 아래 전기 스위치를 딸깍 껐다. 조금 전에 들어가서 돌아다녔던 컴퓨터 게임 속의 세상이 아직 눈앞에 어른거린다.

‘마고 전설’이라는 게임인데,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나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 때, 나쁜 귀신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막 잡아가서 자기편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이 귀신한테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도 그때부터 귀신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돌아다니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세상이 온통 귀신 천지가 된다는 좀 터무니없는 줄거리이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마을을 만들고, 논밭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공장을 세

낱말 사전

- 어른거린다** 무엇이 희미하게 보이다 말다 한다.
- 터무니없는**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는.
- 예**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고, 산에는 성을 쌓아 군사들을 훈련시켜 귀신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 일이 만만치 않아서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갖가지 귀신들을 만나 하나씩 쓰러뜨리며 사람들을 구해 내는 일이 손에 땀이 날 만큼 아슬아슬하고 짜릿짜릿하다.

온갖 도술을 부리는 대왕 귀신을 물리쳤을 땐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다. 게임 속 세상에서는 수일리가 주인공이어서 모든 일을 수일리가 정한다. 수일이 생각대로 컴퓨터 속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며 귀신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러다가 게임 속 나라에서 빠져나와 컴퓨터를 끄면, 아주 다른 세상이 수일리를 기다리고 있다. 컴퓨터 바깥 수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의 세상은 수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다. 주로 수일리가 이끌려 다녀야 하는 세상이다.

★ 바르게 쓰기

뿔뿔이 (○)	뿔뿔히 (×)
------------	------------

만만치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지.
도술(道 路 術, 術 匪 術) 도를 닦아 여러 가지 조화를 부리는 요술이나 술법.

16 수일리가 하는 게임의 이름을 쓰시오.
()

17 게임에서 수일리가 하는 일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공장 세우기
- ② 논밭을 일구어 곡식 심기
- ③ 귀신들을 모아 훈련시키기
- ④ 성을 쌓아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 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마을을 만들기

중요 **18** 게임을 하는 수일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

- ① 힘들고 지침.
- ② 무섭고 황당함.
- ③ 재미없고 지루함.
- ④ 불안하고 화가 남.
- ⑤ 아슬아슬하고 짜릿짜릿함.

서술형 **19** 게임 속 세상과 현실 세상이 어떻게 다르다고 하였는지 쓰시오.

도움말 게임 속 세상에서의 수일리와 컴퓨터 바깥의 세상에서의 수일리를 비교해 봅시다.

중심 내용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려면 자신이 들은 있어야 한다며 툭툭대는 수일에게 어느 날 강아지 덕실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2 “이게 뭐야. 에이, 방학 동안 학원에만 왔다 갔다 했어!”
컴퓨터를 끄자마자 맥이 탁 풀리며 짜증부터 났다. 달력을 보니 방학이 일주일도 안 남아 있다. 오늘이 8월 25일이니까 정확하게 6일 남았다.

“엄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하려면 내 방학 동안 학원에만 왔다 갔다 한 것이 가 들은 있어야 해.”

수일이는 **결상** 옆에 앉아 있는 덕실이가 엄마라도 되는 듯이, 덕실이를 **결눈질**로 흘겨보며 말했다. 그리고는 영어 학원 가방을 집어서 퍽 소리가 나도록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으, 진짜 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는 학원에 가고 하나는 마음껏 놀 수가 있지.”

“정말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니?”

“둘이었으면 좋겠어.”

낱말 사전

결상 겹터앉는 기구. 가로로 길게 생겨서 여러 사람이 늘어앉을 수 있는 거상과 한 사람이 앉는 의자로 크게 나뉜다.

결눈질 얼굴은 돌리지 않고 눈알만 옆으로 굴려서 보는 일.

“참말이야?”

“그래, 참말이야!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어, 그런데 네가 말을 했니?”

수일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덕실이를 보았다.

“말이야 벌써부터 했지. 지금껏 내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야. 나는 말하면 안 되니?”

덕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말했다. 아주 잠깐 동안 수일이는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았다.**

중심 내용 깜짝 놀란 수일이가 엄마에게 덕실이가 말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엄마는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3 “엄마! 덕실이가 말을 해요!”

수일이가 방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덕실이가 말을 했어요!”

수일이는 방문 앞 나무 층계를 쿵쿵쿵 **디디며** 마루로 내려와서 엄마를 찾았다.

★ 바르게 읽기

[결눈질]	[결눈질]
(○)	(×)

참말 사실과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

예 그것이 참말인가요? 거짓말은 아니겠죠?

디디며 발을 올려놓고 서거나 발로 내리누르며.

20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누구인지 고르시오. (,)

- ① 아빠 ② 할머니
- ③ 수일이 ④ 덕실이
- ⑤ 수일이 동생

21 수일이가 바라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

- ① 빨리 어른이 되는 것
- ② 빨리 개학을 하는 것
- ③ 덕실이가 말을 하는 것
- ④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 ⑤ 덕실이가 대신 학원에 가는 것

22 수일이가 21번에서 답한 것과 같은 소원을 바라는 까닭은 무엇인지 () 안에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하나는 (1)()에 가고, 하나는 마음껏 (2)()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요 23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

- ① 수일이가 말을 한 것
- ② 덕실이가 말을 한 것
- ③ 덕실이가 춤을 춘 것
- ④ 수일이가 게임을 한 것
- ⑤ 두 명의 수일이가 생긴 것

수일이 방은 2층으로 오르는 나무 층계 중간쯤에 있는 **다락방**이다. 2층에는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그분들은 바깥 층계를 쓰신다.

아래층에는 방이 모두 세 칸인데, 수일이네가 방 둘과 큰 부엌, 마루를 쓰고 뒷방 하나와 그에 딸린 작은 부엌은 예주라는 대학생 누나가 세 들어 지낸다. 예주 누나는 방학이라 자기 시골집에 가고 없었다.

“엄마, 덕실이가요!” / “애, 너 또 학원 가기 싫으니까 영똥한 소리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덕실이가 말을 한다는 소리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손에 걸레를 들고 있었다.
청소 중이었음.

“아니에요, 정말로 말을 했어요!”
 “개들도 무슨 말인가 하기는 하겠지.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나하고 말을 했다니까요. 나는 알아들었어요. 덕실이가 나한테, ‘나는 말하면 안 되니?’ 그랬어요.”

날말 사전

다락방 주로 부엌 위에 이 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을 방으로 꾸민 것.

“애가 더위를 먹었나? 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 이상한 소리를 해서 큰 학원에나 가. 늦겠다!”

엄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더 듣지도 않겠다는 듯이 욕실로 걸레를 빨러 들어가 버렸다. / “알겠어요.”

수일기도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하고 다시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마음을 다져 먹었다. 덕실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글까지 쓴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덕실이가 방문 앞에 나와 서서 다 보고 있었다.

“들어가자.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수일이는 덕실이를 데리고 도로 방으로 들어왔다. 눈에서 잠깐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하기는 나도 잘 안 믿어지는데, 엄마가 쉽게 믿겠니? 개가 말을 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짐.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다니! 컴퓨터 게임 하면서 너랑 나랑 **전자파**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 “…….”

전자파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파동. 전자기파.

24 덕실이가 말을 한다는 수일이의 말을 들은 엄마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

- ① 신기해함.
- ② 믿지 않음.
- ③ 알고 있었다고 함.
- ④ 덕실이가 이상하다고 걱정함.
- ⑤ 수일이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함.

25 엄마가 24번에서 답한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엄마가 상상한 내용과 같아서
- ② 수일이가 평소 헛소리를 들어서
- ③ 수일이는 항상 참말만 하기 때문에
- ④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 ⑤ 요즘 덕실이가 잘 짓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
26 엄마의 반응에 대한 수일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엄마께 감사한 마음이 듦. ()
- (2) 엄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엄마가 원망스러움. ()
- (3) 엄마와 다시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라 마음먹었으나 엄마의 반응이 이해는 감. ()

서술형
27 이 이야기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

도움말 수일이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 또는 수일이와 비슷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져 본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중심 내용 수일이는 덕실에게 컴퓨터 오락도 하고 공도 차며 놀게 누가 자기 대신 학원을 좀 다녀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4 “아무 말이든 또 해 봐. 덕실아, 너도 내가 하나로는 힘들겠다고 생각하지?”
자기 생각에 동의를 구함.

“조금.”

덕실이가 말했다.

“조금이라고? 아침 먹자마자 피아노 학원, **속셈** 학원, 바둑 교실, 영어 학원, 검도……. 하루 종일 학원에 왔다 갔다 하기 바쁜데도? 방학인데 놀 시간이 없어!”

“학원 다니는 게 싫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이 하나 더 필요한 까닭

“너는 한 군데도 안 다니니까 그렇지. 컴퓨터 오락도 좀 마음 놓고 하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공도 차며 **실컷** 놀고 싶단 말이야.”
학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

낱말 사전

속셈 계산기 따위를 쓰지 아니하고 머릿속으로 하는 계산.
예 속셈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 차는 게 좋아? 나는 공을 물어뜯는 게 더 좋더라.”
★

“그러니까 너도 엄마한테 꾸중을 듣지. 아무거나 물어 공을 자꾸 물어뜯으니까 뜯는 버릇 좀 고쳐. 공은 차면서 노는 거야.”

“그렇게 공이 차고 싶으면 엄마한테 공 차는 학원에 보내 달라고 하렴.”

“그런 학원은 없어.”
공 차는 학원
“안됐구나.”

“우, 내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누가 나 대신 학원에 좀 다녀 줬으면!”

수일이가 결상 다리를 발로 차며 말했다. 결상은 아무 령지도 않고 발바닥만 아팠다.

★ **바르게 쓰기**

물어뜯는 (○)	물어뜯는 (×)
-------------	-------------

실컷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한껏.
예 놀고 싶을 때 실컷 놀아라.

28 이 이야기를 읽고 만든 질문 중에서 주인공의 생각이 나 느낌을 추론하는 질문에 ○표를 하시오.

- (1) 수일이는 누구와 대화하고 있나요? ()
- (2) 수일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 (3) 수일이는 왜 “내가 들어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을까요? ()

29 덕실이가 공으로 하는 일 중 좋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 ① 공 차기
- ② 공 굴리기
- ③ 공 숨기기
- ④ 공 물어뜯기
- ⑤ 공 주워 오기

30 수일이가 자신이 들어 되면 다른 한 명에게 시키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 ① 집안일
- ② 공 차기
- ③ 책 읽기
- ④ 컴퓨터 게임
- ⑤ 학원 다니기



31 이 이야기의 작품 속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서하: 작품 속 세계에서는 강아지와 대화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강아지와 대화할 수 없어.
호영: 작품 속 세계에서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동물을 집에서 키울 수 없어.
하은: 작품 속 세계에서는 수일이가 많은 학원에 다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아.
()

중심 내용 덕실이는 자신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수일에게 손톱을 깎아서 쥐한테 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5 “정말 네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너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 바르게 쓰기

“하나 더? 어떻게?”

깎아서 (○)	깎아서 (×)
------------	------------

“말해 주면 나한테도 가끔 공을 물어뜯을 수 있도록 수일이를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바랄 해 주는 거지?”

“그래. 못 쓰는 공 너 하나 줄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손톱을 깎아서 쥐한테 먹이는 거야.” / “뭐어?”

“그러면 그 쥐가 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뀔지도 몰라.”

손톱을 먹은 쥐
“그건 옛날이야기일 뿐이야.”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지.”

날말 사전 

함부로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예 어른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옛날이야기래도. 어떤 아이가 손톱을 함부로 버렸는데, 그걸 쥐가 먹고는 사람이 돼 가지고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 이야기 말하는 거지?”

“그래도 나 같으면 한번 해 보겠어.”

“글쎄, 그게 될까?” 뒤에게 손톱을 먹여 보겠어.

불가능하다 생각함.
“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쥐도 없잖아.” / “쥐는 어디든 있어.”

덕실이가 나직하게 말했다. 쥐가 어디선가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그때 문밖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수일아, 뭐 하고 있니? 얼른 학원에 안 가?”

“예, 지금 가요!” / 수일이는 얼른 학원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고 나왔다. 덕실이도 뒤따라 나왔다.

나직하게 소리가 꽤 낮게.
예 그는 언덕 위에 올라 나직하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32 덕실이가 가르쳐 준 ‘수일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 덕실이가 수일이 흉내를 내는 것
- ② 수일이의 손톱을 깎아서 쥐한테 먹이는 것
- ③ 수일이의 손톱을 깎아서 덕실이가 먹는 것
- ④ 쥐를 한 마리 잡아서 수일이 옷을 입히는 것
- ⑤ 수일이를 닮은 인형을 만들어 수일이 옷을 입히는 것

33 덕실이가 한 말에 대한 수일이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하시오.

- (1) 옛날이야기일 뿐이다. ()
- (2) 덕실이의 말이 꽤 믿음만하다. ()
- (3)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다. ()

서술형

34 다음을 상상하여 이 이야기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쓰시오.

수일이는 가짜 수일이를 만들 수 있을까?

도움말 「수일이와 수일이,」라는 이 글의 원래 제목도 생각해 보며, 수일이의 소원대로 수일이가 한 명 더 생길지 상상해 봅시다.

중요
35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읽을 때 경험을 떠올리며 읽으면 좋은 점을 모두 고르시오. ()

- ① 내용을 빨리 읽을 수 있다.
- ②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③ 작품 읽는 것이 더 지루하게 느껴진다.
- ④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⑤ 자신이 아는 내용과 비교하며 읽을 수 있다.

꽃

학습 목표 ▶ 경험을 떠올리며 시 쓰기

교과서 84~90쪽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꽃을 보았다.

내가 먼저 본 줄 알았지만

봄이 [★]쫓아가던 길목에서
이 시의 시간적 배경
내가 보아 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꽃이 하고 있었던 일 ①
있었다

내가 먼저 말 건 줄 알았지만

바람과 인사하고 햇살과 인사하며
날마다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꽃이 하고 있었던 일 ②

내가 먼저 웃어 준 줄 알았지만

떨어질 꽃잎도 지켜 내며
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다
꽃이 하고 있었던 일 ③

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
말하는 이의 마음

★ 바르게 쓰기

쫓아가던	쫘차가던
(○)	(×)

- 글의 종류: 시
- 글쓴이: 정여민
- 글의 특징: 봄날에 핀 꽃이 먼저 내가 보아 주기를 기다리며 나를 향해 웃고 있었음을 깨닫고 꽃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 경험을 떠올려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쓰기

- 시로 표현하고 싶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 시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찾아 봅니다.
- 경험을 떠올려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씁니다.
- 시 내용에 어울리게 제목도 바꾸어 봅니다.

36 어떤 경험을 시로 나타내었습니까? ()

- ① 꽃을 심고 가꾼 경험
- ② 봄날에 꽃을 본 경험
- ③ 꽃이 지는 것을 본 경험
- ④ 꽃을 꺾어 책상을 장식한 경험
- ⑤ 꽃을 따서 화전을 부쳐 먹은 경험

38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떨어진 꽃을 그리워하는 분위기
- ② 꽃과 '내'가 친구 같은 정다운 분위기
- ③ 꽃이 다 떨어져 슬프고 우울한 분위기
- ④ 자연에 관심이 없던 '내'가 반성하는 분위기
- ⑤ 꽃이 꽃봉오리를 피우기 위해 애쓰는 조마조마한 분위기

37 꽃이 하고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날마다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 ② 바람과 햇살을 피해 숨어 있었다.
- ③ 떨어질 꽃잎을 지켜 내고 있었다.
- ④ 내가 보아 주기를 날마다 기다렸다.
- ⑤ 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다.

서술형

39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1연과 2연을 바꾸어 쓰시오.

- (1) 1연
➔ _____
- (2) 2연
➔ _____

도움말 시로 표현하고 싶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시의 일부분을 알맞게 바꾸어 써 봅니다.



교과서 문제 확인



교과서
66~67쪽

「유관순」

○ 유관순의 생애를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쓴 전기문

- 「유관순」을 읽고 궁금한 점을 찾아 질문을 만들고 짝과 함께 해결해 봅시다.

질문	답
예 유관순은 고향으로 돌아가 어떤 일을 했나요?	예 동지들을 모아 독립 만세를 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만약 유관순이 일본 헌병들에게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 「유관순」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짝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내 생각이나 느낌	예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지키려는 소녀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짝의 생각이나 느낌	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낸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유관순」을 읽을 때 어떤 경험을 떠올렸는지 말해 보세요.
 - 예 가족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다녀온 것이 생각났어.
-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말해 보세요.
 - 예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 책이나 영상에서 본 것을 떠올리면 더욱 실감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70쪽

「출렁출렁」

○ 학교에 지각하겠다 싶을 때, 춤고 배고파 죽겠다 싶을 때, 네가 보고 싶을 때 힘껏 길을 잡아당겨 학교, 집, 너를 내 앞으로 당겨 온다고 상상하여 표현한 시

-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 예 학교에 지각하겠다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겨 학교가 시에서 말하는 이 앞으로 온다고 상상한 것입니다. / 춤고 배고파 죽겠다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겨 저녁을 차린 집이 버스 정류장 앞으로 온다고 상상한 것입니다. /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겨 그리운 사람이 자신에게 안겨 온다고 상상한 것입니다.
-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예 학교와 집에 빨리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 그리운 사람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 3연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 예 누군가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 이 시의 말하는 이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 예 등교 시간에 배고파서 점심시간을 앞당기고 싶었어.
-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상상을 하나요?
 - 예 밤에 자기 전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 큰 소리로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루어지는 상상을 합니다.



교과서 문제와 답을 확인하며 학교 숙제를 해결하세요.

교과서 81~83쪽

「덕실이가 말을 해요」

○ 자신이 두 명이었던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일에게 강아지 덕실이가 말을 걸며 벌어지는 이야기

- 「덕실이가 말을 해요」를 읽고 짝과 함께 질문을 만들고 해결해 봅시다.

	질문	답
추론 질문	엄마께서는 왜 덕실이가 말을 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예 수일이가 장난으로 강아지가 말을 한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수일이는 왜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을까요?	예 방학 동안 학원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싫고, 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감상 질문	수일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 「덕실이가 말을 해요」에서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부분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 나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 수일이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마가 가짜 수일이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 엄마가 가짜 수일이를 예뻐하실 것 같아.
수일리와 가짜 수일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가짜 수일리가 진짜 행세를 할 것 같아. / 엄마가 가짜 수일리를 예뻐해 수일리가 가짜 수일리를 만든 것을 후회할 것 같아.
가짜 수일리를 만난 수일이 기분은 어떠할까?	예 친구들이 가짜 수일리와 더 재미있게 놀아서 수일리가 외로워질 것 같아.

- 「덕실이가 말을 해요」의 작품 속 세계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 작품 속 세계에서는 강아지와 대화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작품 속 세계에서는 손톱을 쥐에게 먹여 가짜 수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과서 86~88쪽

「꽃」

○ 내가 보아 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꽃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시

- 이 시에서 인상 깊은 표현은 무엇인가요?

예 “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 “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예 봄날에 꽃을 보았습니다. / 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경험을 떠올리며 「꽃」의 표현을 바꾸어 써 보세요.

「꽃」의 표현	바꾸어 쓴 표현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예 친구가 손을 내밀었다
예 내가 먼저 본 줄 알았지만 봄이 쫓아가던 길목에서 내가 보아 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예 나만 화해하고 싶은 줄 알았는데 마음이 갈라지는 길목에서 먼저 손을 내어 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예 내가 먼저 웃어 준 줄 알았지만 떨어질 꽃잎도 지켜 내며 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다	예 내가 먼저 손 내민 줄 알았지만 섭섭한 마음 뒤로하며 나를 향해 더 많이 성큼 손 내밀고 있었다



단원 정리 학습



핵심 1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 알기

-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 책이나 영상에서 본 것을 떠올리면 더욱 실감 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읽으면 자신이 아는 내용과 비교하며 글을 읽을 수 있고, 작품 읽기의 즐거움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아.



핵심 2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 읽기

1 경험을 떠올리며 시 읽기

-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알아봅니다.
- 시에서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파악합니다.
-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립니다.
- 시에서 말하는 이와 비슷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져 본 경험을 떠올립니다.

예 「꽃」과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수민: 벚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면서 한참 서 있었어.
 준호: 새로운 친구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걸었는데, 그 친구도 나와 친해지고 싶었다고 했어.
 유정: 꽃이 아주 예뻐서 좋아했는데 꽃 이름을 몰라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

시와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시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시의 표현들을 잘 살펴 봐야 해. 그리고 시에서 말하는 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는 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해. 또 시에서 말하는 이가 상상한 것도 짐작해 봐야 하지.



2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읽기

- 내가 겪은 일이나 아는 것을 활용해 이야기를 읽습니다.
- 작품 속 주인공이 겪는 일과 현실 속에서 내가 겪는 일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읽습니다.



단원 확인 평가

중요 06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일기장에서 내 경험을 모두 찾아본다.
- ② 국어사전에서 모르는 낱말의 뜻을 찾아본다.
- ③ 내가 겪은 일이나 아는 것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는다.
- ④ 작품 속 주인공이 겪는 일과 현실 속에서 내가 겪는 일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⑤ 글을 읽은 뒤에 글쓴이에 대해 조사하여 글에서 전하려는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07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바르게 비교한 것에 모두 ○표를 하시오.

- (1)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는 거의 차이가 없다. ()
- (2) 작품 속 세계는 현실 세계와 비슷하거나 같은 점도 있다. ()
- (3) 작품 속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

[08~10]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내가 먼저 본 줄 알았지만
봄이 쫓아가던 길목에서
내가 보아 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말 건 줄 알았지만
바람과 인사하고 햇살과 인사하며
날마다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내가 먼저 웃어 준 줄 알았지만
떨어질 꽃잎도 지켜 내며
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다

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

08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꽃에 나비가 날아드는 모습
- ② 꽃을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
- ③ 봄날 예쁘게 핀 꽃들의 모습
- ④ 친구들과 즐겁게 축구하는 아이의 모습
- ⑤ 아이가 골목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모습

09 이 시에서 느껴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

- ① 꽃이 부러운 마음
- ② 꽃을 심고 싶은 마음
- ③ 꽃을 보기 싫은 마음
- ④ 꽃을 보고 미안한 마음
- ⑤ 꽃을 본 것이 부끄러운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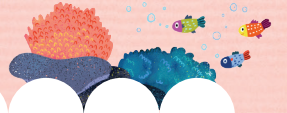
서술형 10

이 시와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

도움말 이 시는 봄날 꽃을 보고 떠오른 생각을 표현한 시입니다.



꼭꼭 숨어라, 숨은 그림 찾기



친구들과 조선시대 성곽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어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해서 자랑스러웠어요. 어떤 그림이 꼭꼭 숨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출처: '숨은그림찾기' 시리즈, '숨은그림찾기' 시리즈, '숨은그림찾기' 시리즈